

## 휴게소 밥값 인하 관련, '3차례 구두회의로 졸속 결정'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### < 보도 내용 >

#### ◆ (오마이뉴스, 10.9.) 원희룡, '휴게소 밥값 인하' 3차례 구두회의로 졸속 결정

- 국토부가 밥값 인하정책을 졸속 결정하고, 이를 거부한 전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 사퇴시킨 것은 공기업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꼼수

□ 국토부는 지난해(8~9월) 휴게소 서비스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밥값 인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아이디어 수준에서 논의하였을 뿐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정책을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또한, 해당 TF 운영 과정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관련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TF를 종료하였습니다.
- 이후, 논의 중인 미확정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유출된데 대해 감찰이 시작되자, 전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한 것으로, 음식값 인하 거부를 사유로 사퇴한 것은 아닙니다.

※ '23.4.6(목) "'휴게소 음식값 인하 관련, '도공 사장 바뀌자 말 바뀌었다'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" 및 '23.9.22.(금) "휴게소 음식값 상승 관련, '국토부 장관 휴게소 음식값 10% 인하 방침'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" 보도정정자료 참조

□ 한편,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식자재 공동구매, 중저가 식품 및 할인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가격대별 상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휴게소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,

- 휴게시설협회,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'휴게시설 혁신 TF'를 구성하여 휴게소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	책임자	과 장	한성수 (044-201-3909)
	도로관리과	담당자	주무관	임정훈 (044-201-3920)